

# 영상을 이용한 일본현대소설의 수업방안

## - 소설이 원작인 영화작품을 중심으로

김 활 란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현대소설읽기라는 수업을 통해 대학의 교양문학수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수업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많은 국내외소설들이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원작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 흥행의 영향으로 소설까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는 등, 영상의 힘은 막강하다.

그래서 일본어소설읽기라는 교양과목 수업에서는 영상세대인 학생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현대소설을 영화화한 10개의 작품을 선택하여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했다.

작품선정은 대부분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순수문학분야의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아쿠타가와상과 대중문학분야에 주어지는 나오키상, 그리고 일본서점직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주는 일본서점대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서 선택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일본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일본소설은 물론 일본영화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났다고 했다.

주제어 : 일본현대소설, 일본영화, 원작소설, 영화화, 설문조사

## 1. 들어가는 말

최근 대학교육의 외국어 교과과정에서는 실용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학습경향으로 문학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교과과정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또한 과거의 문학 수업은 문법을 설명하고 번역을 위주로 하는 작품을 중심 자료로 삼았던 교수법으로 교수는 문법과 어휘에 대한 설명, 학생은 번역을 목표로 삼는 수용적인 수업이었다.<sup>1)</sup>

문학 강의 수업에 있어서 교강사들이 문학작품의 분석에만 그쳐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틀에 박힌 전공서적이나 과제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가 쉽다.<sup>2)</sup>

일본문학수업의 경우도 담당 교수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데 무슨 방법론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感)으로 가르치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분명 일본문학도 강의실에서 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교수법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문학 교육 방법 역시 다양하게 새롭게 진화해가야 할 것이다.<sup>3)</sup>

문학수업에서 영상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문자매체보다는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상매체들과 함께 작품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문학수업이라는 의미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기도 한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이며 텍스트를 읽고 듣고 보는 다매체적 체험을 통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

---

1) 김영란, 『대학에 있어서 일본 문학 수업의 현황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4.

2) 황진자, 「대학에서의 독문학 수업을 위한 교안모델 —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독어교육』, Vol. 21, 2001.

3) 이정희, 「디지털시대의 일본 문학 교육 — 일본 문학 교육 방법론 모색」, 『한국일본어 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2011, No.6.

험을 창의적 글쓰기, 연출, 비문학 텍스트 작성, 또는 다른 매체로 변환하기 등으로 표현해내는 활동과 연결하게 됨으로써 문학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sup>4)</sup>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공받은 일본문학 도서 목록에 의거해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번역된 주요작가 중 작품 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설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하여 히가시노 게이고, 에쿠니 가오리, 미야베 미유키, 오쿠다 히데오, 이사가 고타로, 온다 리쿠, 호시 신이치 등이다. 주로 추리소설 작가와 나오키 상 등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2009년에 교보문고에서 판매된 1000위 도서 중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올려놓은 저자 2위에 해당한다.<sup>5)</sup>

최근 들어 기존의 인쇄 매체인 소설이나 만화 등을 각색한 영화, 드라마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학을 원 소스(one source)로 하여 여러 장르와 결합, 재창조하는 원 소스 멀티 유스(OSMU : one source multi-use) 작업은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 산업과 영상 산업의 만남은 다양한 이야기 소스 개발로 이어지며, 인기 있는 이야기 소스는 다양한 매체로 전환되고 활용되면서 각각의 매체의 성공에 도움을 준다.<sup>6)</sup>

특히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소설은 대부분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wai 순지의 「러브레터」, 가타야마 교이치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X의 헌신』,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사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상실의 시대)』(2011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미 인기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들이 한국감독들에 의해 또 다시 리메이크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 한국에서도 꾸준히 개봉되고 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아사다 지로의 단편 「러브레터」를 원작으로 한 <파이

4) 신혜양, 「변화된 매체환경에서의 독문학 수업방안 — 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수업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 24, 2011.

5) 이한정, 「일본소설의 한국어 번역 현황과 특성 — 2006년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어 문학』 제51집, 2010.

6) 장주희, 『일본 원작 소설의 영상화』, 석사학위논문, 2010.

란>(2001), 토시오 카마타의 「29세의 크리스마스」는 <싱글즈>(2003)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에가시라 미치루의 『푸어 소울』은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라는 작품으로, 가타야마 교이치의 소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가 <과랑주의보>(200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재일코리안 작가인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플라이, 대디 플라이』는 <플라이 대디>(2006)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기시 유스케의 소설 『검은 집』(2007)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고, 다이라 아즈코의 소설 『멋진 하루』는 <멋진 하루>(2008)라는 같은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백야행』이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2009)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백야행』은 일본에서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용의자 X의 헌신』은 <용의자X>(2012)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의 소설 『방황하는 칼날』(2014)은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2012)도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으며, 노나미 아사의 소설 『얼어붙은 송곳니』가 <하울링>(2012)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 되었다.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남쪽으로 튀어』(2013) 역시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이처럼 일본소설이 영화화되어 한국의 영화관객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소설을 읽지 않았다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먼저 영화의 흥행성공으로 순식간에 소설까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요즘은 이런 원작소설을 스크린 셀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스크린과 베스트셀러의 만남이다. 그만큼 국내외소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원작소설이 대중적인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소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복잡하고 섬세한 의미나 표현 등을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등장인물들이 가진 각각의 캐릭터나 인상 깊었던 장면 등을 상상하는 맛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소설보다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영상세대인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소설을 더 가까이하게 하고 자주 읽게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만큼 그 동기부여가 높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현대소설읽기 수업에서

는 소설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까지 함께 감상하며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는 물론 책을 읽기 위한 동기부여까지 높여주고자 했다.

## II. 수업의 진행 과정

### 1. 작품 선정

일본현대소설읽기 강좌는 제목 그대로 수업시간에 일본현대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이 일본문학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영상세대인 학습자들을 위해 한기동안 일본현대소설 중에 인기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본고에서는 그 수업의 진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더 나은 수업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선정 기준은 일본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거나 해당소설을 선택했다. 일본에는 수많은 문학상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학상으로는 아쿠다가와상<sup>7)</sup>과 나오키상<sup>8)</sup>이 있다. 특히 아쿠다가와상 수상 명단에는 재일 코리안 작가들<sup>9)</sup>의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

아쿠다가와상이 순수문학작품에 수여되는 반면 나오키상은 주로 대중적인 소설에 수여되는 상이다. 대중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상이다보니 한국에도 대

7) 아쿠다가와 상은 소설가 기쿠지 간(菊池 寛)이 그의 친구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 龍之介) 사망 후에 그를 기념하여 만든 상으로 1935년부터 실시하였다. 순수문학 분야에서 무명 또는 신진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연 2회 수여하는 상이다. 일본에서는 신인작가의 등용문으로서 최고 권위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

8) 나오키상 역시 기쿠지 간에 의해 같은 해인 1935년 그의 친구인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의 사망 후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매년 2회씩 대중문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인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아쿠다가와상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문학상이다.

9) 1972년 이회성 『다듬이질 하는 여인』

1989년 이양지 『유회』

1997년 유미리 『가족시네마』

2000년 현월 『그늘의 집』

부분 번역된 작품들<sup>10)</sup>이 많아서 한국독자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 많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 이외에 가장 대중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서점 대상<sup>11)</sup>이 있다.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3회를 맞이했다. 서점직원인 일반인들에 의해 뽑힌 작품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주로 선정된다. 그만큼 파급력도 크다. 일단 서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1위 작품이 아니더라도 10위 순위권 안에 든 작품들까지도 함께 인기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렇다보니 1위 작품을 비롯하여 순위권 안에 든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화 또는 드라마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1위 작품이 영화화<sup>12)</sup>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 작품까지의 모든 대상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2013년 작품은 현재 영화촬영 중에 있다.

수업을 위한 작품선정은 위에서 언급한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영화화 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한

- 10) 1997년 아사다 지로 『철도원』  
 2000년 가네시로 가즈키 『GO』  
 2004년 오쿠다 히데오 『공중그네』  
 2005년 히가시노 게이고 『용의자 X의 헌신』
- 11) 매년 일본 전국 서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팔고 싶은 책, 독자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을 설문 조사해서 선정하는 상이다. 매년 4월에 수상작을 발표하며, 1차로 400여개 서점 직원들에게 지난 해 출간된 소설 중에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추천받는다. 1차 투표를 통해 10권을 후보작으로 선정하고, 2차 투표를 통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책이 올해의 서점 대상이 된다.
- 12) 제1회 2004년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  
 제2회 2005년 온다 리쿠의 『밤의 피크닉』  
 제3회 2006년 릴리 프랭키의 『도쿄타워-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  
 제4회 2007년 사토 다카코의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  
 제5회 2008년 이사카 코타로의 『골든 슬럼버』  
 제6회 2009년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  
 제7회 2010년 우부카타 도우의 『천지명찰』  
 제8회 2011년 히가시사와 도쿠야의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식사 후에』  
 제9회 2012년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  
 제10회 2013년 하쿠타 나오키의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제11회 2014년 와다 료의 『무라카미 해적의 딸』  
 제12회 2015년 우에하시 나오코의 『사슴의 왕』

학기동안 10개의 작품을 선택했다. 선택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주차.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
- 2주차. 히가시노 게이코의 『용의자X의 헌신』
- 3주차. 가네시로 가즈키의 『GO』
- 4주차. 오쿠다 히데오의 『인더풀』
- 5주차. 무라카미 류의 『69』
- 6주차. 요시다 슈이치의 『악인』
- 7주차. 이사카 코타로의 『골든 슬럼버』
- 8주차. 에쿠니 가오리의 『도쿄타워』
- 9주차. 에쿠니 가오리,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사이』
- 10주차.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

## 2. 수업 진행

이 수업은 학습자 참여 중심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 먼저 발표 그룹을 나눈다. 작품선택과 발표날짜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4~5명의 학생을 총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2. 발표작품 순서를 정한다. 작품의 순서는 무작위로 정하고 단지 매주에 해당하는 작품은 위와 같이 정했다. 해당 주차를 뽑는 학생들은 한 팀이 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표준비를 함께 하게 된다. 작품 선정할 때 처음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포함했지만 해당 발표팀이 영화의 베드신 등이 많아 편집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작품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기에 『러브레터』를 추천하여 이 작품으로 발표 준비했다.

3. 해당 팀은 기본적으로 PPT와 요약문, 동영상상을 편집한다. PPT내용은 해당 작품의 소개와 작가 소개를 하는데, 작품에 대한 즐거움, 등장인물 과 작품에 대한 분석,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기타 평론 조사,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 영화에 대한 평가 등을 찾아보고 팀 토론해본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그 외에 A4용지의 두 장 이상 분량의 요약문을 만들어 복사한 후에 학생 전체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강의 시간이 2시간 45분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40분~50분 정도 분량으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준다. 하지만 가능한 각자 완성된 영화를 보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4. 토론팀을 나눈다. 팀 발표와 동영상 모두 보고난 후에는 5명 정도의 토론 팀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각 팀에 발표팀 멤버들을 한 명씩 참가하게 하여 리더로서 토론을 이끌도록 한다. 발표팀인 만큼 해당 작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팀은 4주에 한 번 정도 팀을 바꾸거나 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멤버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내용은 발표팀이 멤버끼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여 만든 5개 정도의 토론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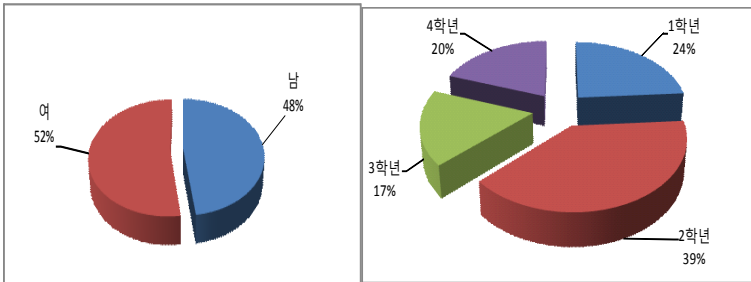
토론주제의 예로 이wai 순지의 「러브레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의 제목인 ‘러브레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2. 남자 이츠키는 정말 와타나베 히로코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여자 이츠키를 닮았기 때문에 좋아한 것일까?
3. 여자 이츠키는 반 친구들이 장난으로 전학 가버린 남자 이츠키 책상위에 놓여있던 국화꽃병을 집어서 던져버린다. 왜 그랬을까?
4. 남자 이츠키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은 어떤 장면들일까?
5. 남자 이츠키가 마지막으로 여자 이츠키를 찾아와 책을 대신 반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내민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6.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5. 팀별로 토론이 끝나고 나면 전체질문시간 등을 통해 교수자가 학생 개개인에게 토론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질문을 이어나간다. 질문과 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각 등장인물들과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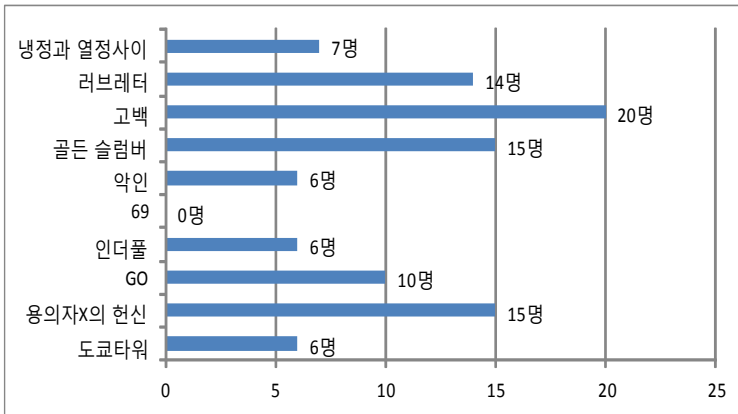
### Ⅲ. 수업 진행 후의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동안 이 수업을 들은 남학생 22명, 여학생 24명, 합계 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학년분포는 1학년 11명, 2학년 18명, 3학년 8명, 4학년이 9명이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부록>으로 함께 첨부했다.



<그림 1> 남녀비율

<그림 2> 학년 분포도



<그림 3> 수업에서 다룬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 (복수응답가능)

<그림 3>에서와 같이 수업에서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에 대해 물었다. 복수 응답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 결과,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X의 헌신』과 이사카 코타로의 『골든 슬럼버』가 뽑혔다. 4위는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 5위는 가네시로 가즈키의 『GO』, 6위는 에쿠니 가오리의 『도쿄타워』, 요시다 슈이치의 『악인』, 오쿠다 히데오의 『인더풀』 순이었다. 무라카미 류의 『69』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순위가 높은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고백』의 경우는 전

개방식이 독특하고 반전이 있어서 좋았다, 스토리가 재미있었다, 소재가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다, 일본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광기로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구성과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고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은 2009년 일본서점대상 수상작으로 열세 살의 중학생들의 충격적인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해 어린 딸을 잃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범인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잔인한 진실들이 파헤쳐지는 추리소설이다.

『용의자X의 헌신』의 경우는, 문제 해결이 흥미롭다, 추리물은 반전의 매력이 있다, 소설을 읽는 데 부담이 없고 읽기가 편하다, 생각하지 못한 내용 및 전개가 기억에 남는다, 추리가 매우 흥미로웠다, 보기 드문 장르의 일본영화였다, 소재가 흥미롭다, 소설과 영화 모두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의자X의 헌신』은 제134회 나오키상 수상작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이다. 한 모녀가 살인을 저지른다. 살해당한 남자는 이혼한 아내를 찾아와 괴롭히고 돈을 갈취해온 파렴치한이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모녀를 돕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남자. 그는 혼자 짝사랑하던 그녀를 위해 또 다른 살인이라는 저지르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자수한다는 내용이다. 추리소설이지만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사건을 전개해나가는 작품이다.

이처럼 1, 2, 3위를 차지한 『고백』, 『용의자X의 헌신』, 『골든 슬럼버』 등을 선택한 학습자가 많은 것을 보면,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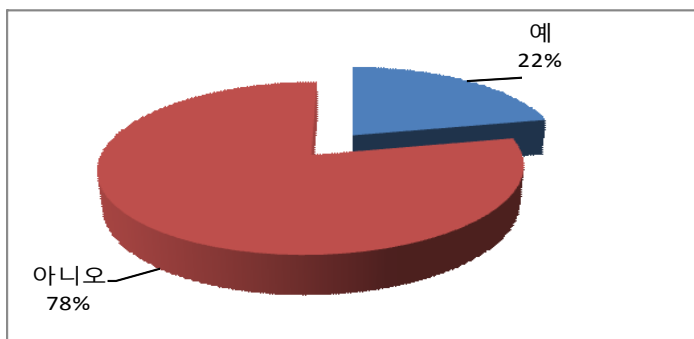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연간 소설 베스트셀러 중에서 일본소설만을 발췌해서 분석한 결과, 무라카미 하루키, 오쿠다 히데오, 에쿠니 가오리, 히가시노 게이고가 꾸준히 읽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2014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 두 작가의 작품으로 축약되었으며, 추리소설의 경향이 점점 높아짐을 알았다.<sup>13)</sup>

13) 이금재, 「일본문학 독서경향과 효과저인 일본문학 교육 -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러브레터」의 경우는 여운이 남는다, 꼭 한 번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다, 소설과 영화 모두 감동적이다,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영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아려오는 사랑이야기다, 명작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소설을 읽고 영화로도 보니 진짜 명작이다, 스토리와 영화의 연출방법이 인상적이다, 마음을 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야기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의 순지의 「러브레터」는 1999년 첫사랑의 아릿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영화다. 일본문화에 보수적이던 국내에서 개봉한 후 일본 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하얀 눈밭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첫사랑 남자에게 외치던 “오갱끼테스까”는 이 영화의 명대사가 되었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가 세상을 떠난 첫사랑 후지이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기를 담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평소에 일본현대소설을 즐겨 읽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10명이 <예>라고 대답했고, 36명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10년 전에는 수많은 일본소설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최근 이십대들은 일본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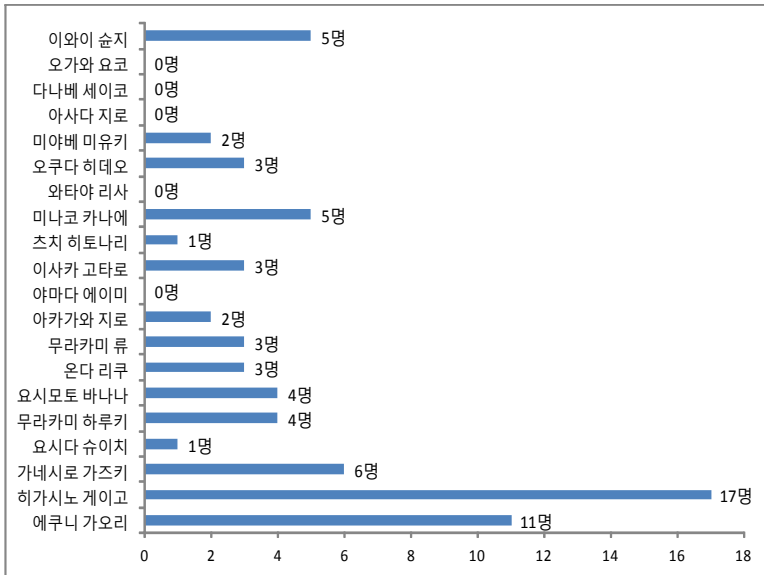


<그림 4> 수업을 듣기 전에도 일본현대소설을 즐겨 읽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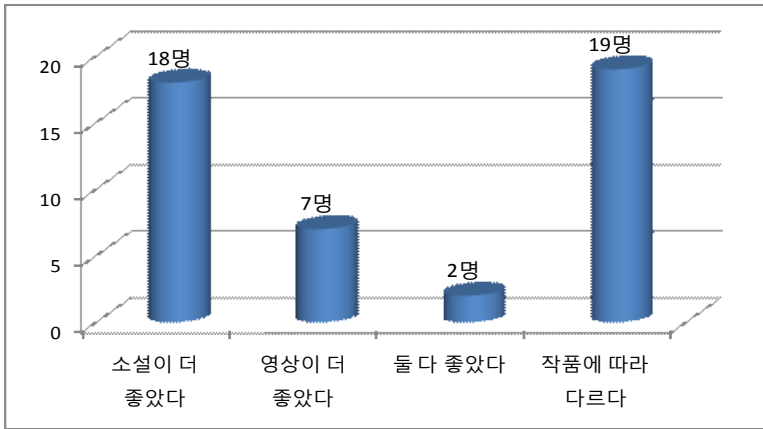
<그림 5>와 같이 좋아하는 일본현대소설가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1위는 히가시노 게이고로 17명이 선택했다. 2위는 에쿠니 가오리로 11명, 3위는 가네시로 가즈키 6명이었다.

추리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작품 40편 이상이 영화화 되거나 TV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에쿠니 가오리 역시 『도쿄타워』, 『냉정과 열정사이』 등으로 한국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작가다. 특히 『도쿄타워』는 『밀회』(2014)라는 드라마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에쿠니 가오리와 요시모토 바나나와 함께 일본 3대 여류작가로 유명한 야마다 에이미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였다.



<그림 5> 좋아하는 일본현대소설가는 누구인가? (복수응답가능)



〈그림 6〉 소설과 영화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았는가?

〈그림 6〉과 같이 소설과 영화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작품에 따라 다르다는 19명, 소설이 더 좋았다는 18명, 영상이 더 좋았다는 7명, 둘 다 좋았다는 2명이었다.

소설과 영화라는 두 예술 형식은 독자적인 미학을 통해 발전해 가는 와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흡수함으로써 지평을 넓혀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설의 영화화’는 오늘날 만화·게임·뮤지컬 등으로까지 확장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문학사의 수많은 고전 명작들이 스크린 위로 옮겨졌다. “서사를 필요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스토리와 플롯이 탄탄한 소설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보고와도 같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나 최근에는 고전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유명한 소설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인기들을 얻고 있다. 한국소설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한 작품을 살펴보면, 박범신의 『은교』(2012),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2014), 정유정의 『내 심장을 쏘라』(2015), 서형의 『부러진 화살』(2012), 김려령의 『완득이』(2011), 공지영의 『도가니』(2011) 등이 영화화 되었다.

드라마로 만들어진 소설도 있다.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2011), 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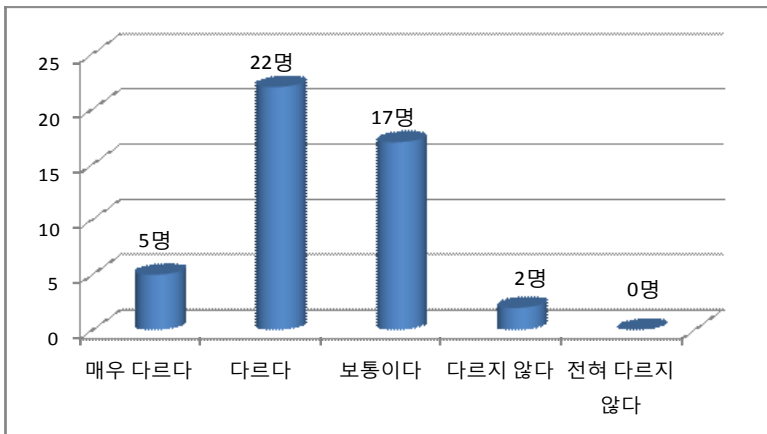
14) 송기정, 『스크린 위의 소설들』, 그린비, 2013, 6쪽.

컬의 『해를 품은 달』(2012)과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각색한 <성균관 스캔들>(2010) 등이다.

이처럼 한국소설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소설과 관련된 수업에도 이 점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학습자는 물론이지만,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수업에 영상물도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의 소설을 이해시키고 흥미를 갖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최근에도 국외소설이 한국에서 영화화되는 경우도 늘었다. 중국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가 <허삼관>(2015)으로 최근에 영화화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기욤 뫼소의 베스트셀러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 작가 세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가 최근에 박찬욱 감독에 의해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림 7>의 그림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답한 학습자가 22명으로 가장 많다. 보통이다는 17명, 매우 다르다는 5명이었다. 그 의견들을 살펴보면, 특히 연애편이 우리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작품은 소재와 스토리 전개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특히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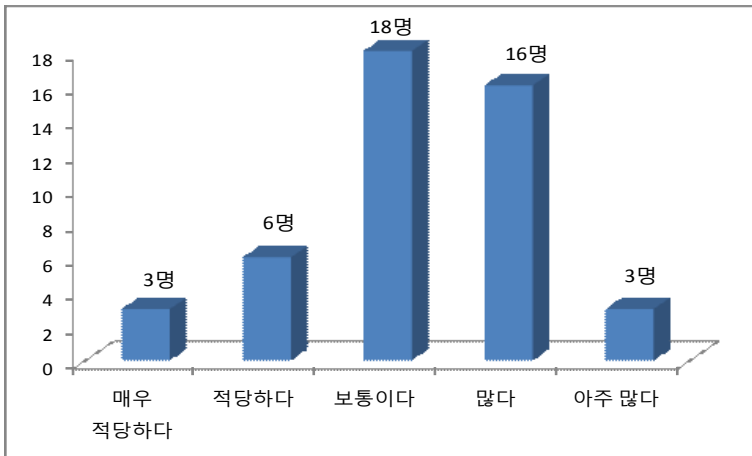


<그림 7> 일본현대소설을 읽고, 한국과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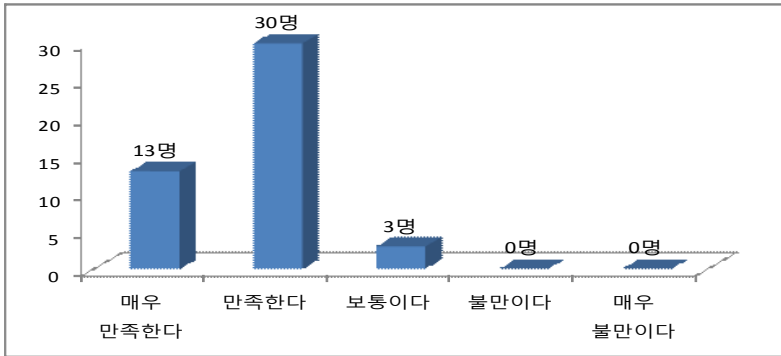
물의 감정과 심리에 공감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감정표현에는 소극적이고 설정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딘가 극단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도쿄타워』의 ‘불륜’이나 『고백』의 ‘미성년자의 살인’ 등과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도 우리와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소설보다는 영화가 좀 더 서정적이고 잔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소금 간을 하지 않아 좀 싱거운 느낌이다, 하지만 특유의 담백함은 좋다, 감정의 절제가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8>을 보면,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권, 또는 2주에 한 권의 소설을 읽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보통이다는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많다는 16명, 적당하다는 6명, 매우 적당하다는 3명, 아주 많다는 3명이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했으나, 다른 과목들의 과제나 시험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필자는 학습자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일본문학작품을 접하게 하고 싶었다. 일주일에 한 권은 결코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소설과 영화를 통해 일본작가들과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정서, 일본인의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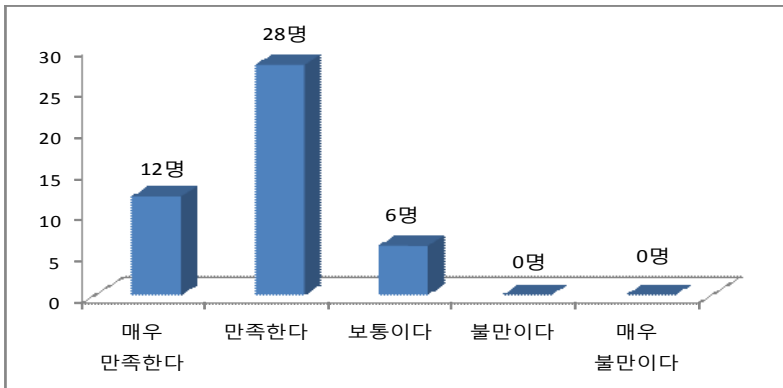
<그림 8> 한 학기 동안 10권의 책은 적당인가?



<그림 9> 소설을 읽고 해당작품의 영화를 보는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림 9>와 같이 소설과 영상을 같이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만족한다는 30명, 매우 만족한다는 13명으로 학습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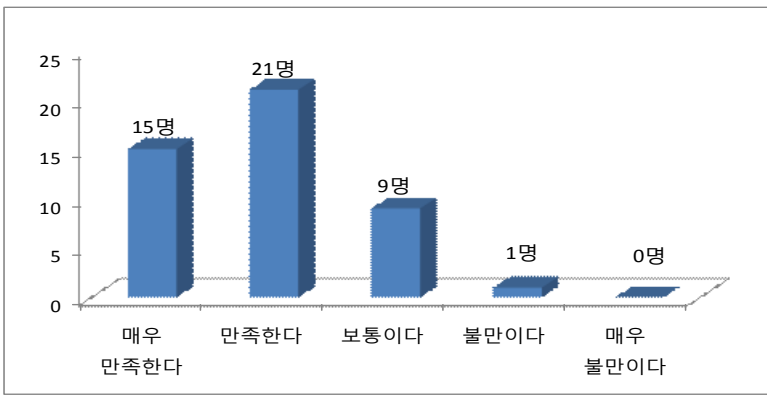
<그림 10>에서 보듯이 발표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28명, 매우 만족한다는 12명, 보통이라는 6명으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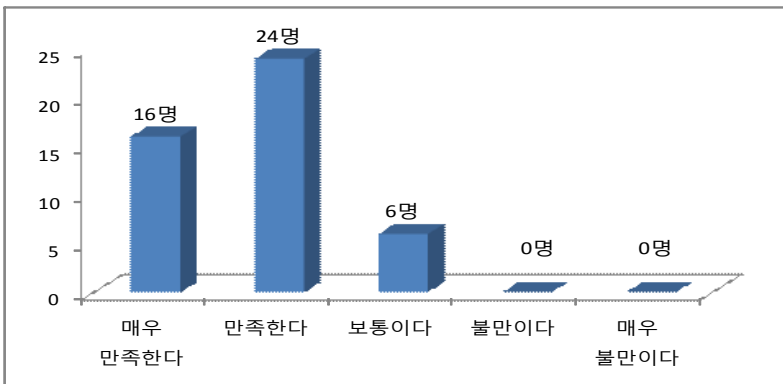
<그림 10> 발표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림 11>과 같이 토론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는 15명, 만족한다는 21명, 보통이라는 9명, 불만이다가 1명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발표그룹을 나누어서 발표했는데 팀워크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24명, 매우 만족한다는 16명, 보통이라는 6명으로 팀워크 역시 좋았다는 팀이 많았다. 이 수업을 통해 유익했거나 좋았던 점을 물어본 결과, 잘 알지 못했던 일본소설과 영화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그룹토론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11> 토론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림 12> 발표그룹 팀의 팀워크는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 장르와 작가에 대한 편식이 좀 줄고 작품에 대한 감상 폭이 넓어졌다, 잘 알지 못했던 일본소설과 영화에 대해 알게 되어서 유익한 수업이었다, 일본문학을 재발견하게 해준 수업이었다, 일본문학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일본여행도 가볼 예정이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작가들의 또 다른 다양한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학기 중에는 늘 과제와 시험을 핑계로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다. 소설과 영화는 같은 내용 이더라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발표수업을 통해 작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소설과 영화차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딱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많지 않아서 빌리는데 힘들었다는 의견과 책을 구매하는 데 부담이 되었다는 의견, 책을 읽고 오지 않는 학습자가 있을 경우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토론 주제의 분량을 좀 줄여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필자는 도서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그룹의 멤버들이 한 학기동안 필요한 도서를 각자 한 권 또는 두 권을 구입해서 그룹 내에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IV. 맺음말

본고는 일본현대소설읽기라는 수업을 통해 대학의 교양문학수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수업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했다.

일본현대소설읽기 수업은 일본현대문학을 소설뿐만 아니라 영상을 함께 감상하면서 작품을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일본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내외소설들이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

세다. 원작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 흥행의 영향으로 소설까지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등, 영상의 파급력은 막강하다. 특히 일본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소설인 경우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자 교육보다는 학문탐구의 훈련을 통해 주체적 사유의 능력을 가진 보편적 인간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으로, 문학수업은 어떻게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sup>15)</sup>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 수업에서 가장 큰 주안점은 활자에서 멀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일본 문학 작품을 흥미롭게 접하게 하는 점에 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문학작품 감상과 특징을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6)</sup>

이처럼 책보다는 영상을 가까이하는 세대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원작소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여 소설을 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해당 수업에서는 영상세대인 학습자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현대소설을 영화화한 10개의 작품을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

작품선정은 대부분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순수문학분야의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아쿠타가와상과 대중문학분야에 주어지는 나오키상, 그리고 일본서점직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주는 일본서점대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서 선택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 작품을 소설과 영화로 보는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일본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

15) 인성기, 「기초교양강좌로서의 문학수업 - 심미(審美)를 통한 자아성찰과 사회인식」,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012.

16) 박혜성,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일본연구』 59호, 2014.

만 이 수업을 통해 일본소설은 물론 일본영화와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났다고 했다. 학습자들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 한국과 달리 특히 소재가 파격적인 경우가 많아서 두 나라의 정서가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리고 토론 발표형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그룹토론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강의 진행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첫째, 이틀로 나누어진 강의 시간이다. 3학점의 과목인 경우 3시간 연속 강의와 이틀로 나누어진 1.5수업이 있다. 3시간 연강인 경우는 수업진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1.5수업은 75분 강의를 월, 수 또는 화, 목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강의진행이 순조롭지 않았다. 영상을 보고 발표와 토론을 할 때 시간이 모자라거나 영상을 제대로 다 못보고 다음 시간으로 연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단점이 생겼다. 영상을 필요로 하는 강의는 3시간 연속강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이 많다. 발표와 토론수업을 진행하기에는 60명이라는 정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지만 수강자가 많다보니 교수자가 일일이 각 그룹의 토론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최소한 수강인원을 35명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책을 읽지 않고 참여하는 학습자의 태도다.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적고, 책을 모두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책을 읽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있어서 토론진행이 어렵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수업 시작 전에 감상문 제출, 또는 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책에 관한 짧은 퀴즈 등을 준비하여 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었다.

다음 연구과제로는 <영화와 문학>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작품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수업방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영상수업을 위한 교수법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부록 ||

<일본현대소설읽기>에 관한 설문조사

\*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1.  남  여

F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Q1. <일본현대소설읽기> 수업에서 다룬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복수응답 가능)

- 도쿄타워  용의자X의 현신  GO
- 인더폴  69  악인
- 골든 슬림버  고백  러브레터
- 냉정과 열정사이

Q1-1 그 작품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Q2. 이 수업을 듣기 이전에도 일본현대소설을 즐겨 읽었는가?

- 예  아니오

Q3. 좋아하는 일본현대소설 작가는? (복수응답 가능)

- 에쿠니 가오리  히가시노 게이고  가네시로 가즈키
- 요시다 슈이치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 온다 리쿠  무라카미 류  아카가와 지로
- 야마다 에이미  이사카 고타로  츠치 히토나리
- 미나코 카나에  와타야 리사  오쿠다 히데오
- 미야베 미유키  아사다 지로  다나베 세이코
- 오가와 요코  이와이 슌지  기타 \_\_\_\_\_

Q4. 모든 작품을,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도 보았다. 어느 쪽 느낌이 더 좋았는가?

- 소설이 더 좋았다.  영상이 더 좋았다  둘 다 좋았다
- 작품에 따라 다르다

Q5. 일본현대소설을 읽고, 한국 정서와 일본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가?

- 매우 다르다       다르다               보통이다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다

Q5-1 <다르다>고 대답한 분들 중에, 어떤 점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가?

Q6.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권, 또는 2주에 한 권의 일본현대소설을 읽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적당하다       적당하다               보통이다  
 많다               아주 많다

Q7. <소설>을 읽고, 수업 시간에 해당 작품의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설과 영상을 같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Q8 <발표> 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Q9. <토론> 형식의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Q10. 발표를 준비하면서 팀워크는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Q11. 이 수업을 통해 유익했거나 좋았던 점은?

Q12. 이 수업을 통해 아쉬웠던 점은?

Q13. 이 수업에서 꼭 다루었으면 하는 일본소설 작품이 있는가?:

## ❖ 참 고 문 헌

- 강명혜,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양상 및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 모형」, 『우리문학 연구』 제21권, 2007.
- 김규진, 「중국대학 내 한국어과 문학 관련 수업의 현황과 실제-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5권, 2012.
- 김영란, 「대학에 있어서 일본 문학 수업의 현황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나카즈마 에이코, 『일본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한국영화의 각색연구 - <차>와 <용의자 X>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3.
- 박혜성,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일본연구』 59호, 2014.
- 신혜양, 「변화된 매체환경에서의 독문학 수업방안-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수업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24권, 2011.
- 송기정, 『스크린 위의 소설들』, 그린비, 2013.
- 이금재, 「일본문학 독서경향과 효과적인 일본문학 교육 -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4권, 2016.
- 이정희, 「디지털시대의 일본 문학 교육 -일본 문학 교육 방법론 모색」,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 이한정, 「일본소설의 한국어 번역 현황과 특성- 2006년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51집, 2010.
- 인성기, 「기초교양강좌로서의 문학수업 - 심미(審美)를 통한 자아성찰과 사회인식」, 『교양교육연구』 제6권, 2012.
- 장주희, 『일본 원작 소설의 영상화』, 석사학위논문, 2010.
- 하채현,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한 방법 - 해외 한국 문학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2010.
- 황진자, 「대학에서의 독문학수업을 위한 교안 모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독어교육』 21권, 2001.
- 최민숙, 「토론식 문학 수업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 독일 표현주의 작가 발터 하젠클레버의 『아들』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제3권 1호, 1999.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Japanese Modern Novels  
by Audiovisual Materials  
- Focusing on the Films Based on Original Novels

Kim, Hwal 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teaching goals for Liberal Literature Lessons in college through the class <Reading Modern Japanese Novels>. Lots of domestic and foreign novels have recently been turned into films or TV series. As cinematized novels become hits in movie theaters, the original stories ascend to the bestseller list due to the success in the box-office, which proves once again how powerful the visual media is.

In this study, 10 works of cinematized literature were explored for one semester in a Liberal Literature class called <Reading Modern Japanese Novels>, aimed at increasing students' interest in novels in the era of digital images.

The literary works chosen for the study were novels that had won the Akutagawa Prize, which is given to writers in the field of pure literature, the Naoki Prize, which is awarded in the field of popular literature, and the Japanese Bookstore Grand Prize, which the employees at Japanese bookstores award to the novel they want to sell most. Afterward, a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in the class to determin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ectur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little interest in Japanese Literature before taking this lecture, they indicated greater interest in Japanese movies and culture as well as novels due to the class.

---

Key Words

modern Japanese novels, Japanese films, original novels, cinematization, survey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